

힐링 대가 혜민 스님 인사동 마음치유학교 연다

3월 개교... 집단상담 통해 치유



〈법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자 SNS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혜민 스님(사진)이 오는 3월 서울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를 연다.

혜민 스님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법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읽고 '괴로움이 해소됐다' '자살 하려다 책을 읽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등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책을 통해 받은 관심을 어떻게 사회에 공익적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고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음치유학교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마음치유학교는 200㎡(약 60평) 정도의 명상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혜민 스님과 심리상담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혜민 스님은 "강연이나 법회로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장기적인 그룹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그룹에 가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치유가 됐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세월호 참사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님 가운데 심리적 치유를 희망하는 분들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 모집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치유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에는 암과 같은 병으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청소년 등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로 모아 상담을 도울 계획이다.

최근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은 스님은 마음치유학교와 뉴욕 불광사 부주지 소임을 보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갈 계획이다. 스님은 "저는 마음치유학교에 상주하지는 않고 내담자와 치유전문가들을 연결하는 등 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돕는 역할에 신경 쓸 것이다. 운영이 잘 된다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고 싶다"며 "첫 번째도 공익, 두 번째도 공익이란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63@hyunbul.com

조계종, 법계별 연수 의무화한다

교육원 '2015 연수교육' 일정·계획 발표

1~3급 승가고시 응시하려면
법계별 연수교육 이수 필수
자원봉사 연수 40점 확대돼
경전 과정 6개 강좌 전면 개편

조계종이 법계별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 제부터는 1~3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계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은)은 1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연수교육' 일정과 기조를 발표했다. 교육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연수 교육은 법계과정·사찰경영과정·경전과정·교양과정·전법과정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법계 직능 제도 정착을 위한 법계 과정 강화다. 강좌형 연수 가운데 지난해 시범기간을 거친 '법계과정'은 올해부터 1~3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변경·시행된다. 승가고시를 응시하는 스님은 법계 과정 강좌를 5년 내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승남 5~9년인 건덕·계남 스님은 '종단 리더십실무과정' 4회, 승남 10~14년인 중덕·정덕 스님은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과 2 각각 2회, 승남 20~24년인 대덕·

혜덕 스님은 종단지도자과정 2회, 승남 25~29년인 종덕·현덕 스님은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 2회를 상·하반기에 나눠 받는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연수 점수를 시간에 따라 세분화한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기존에는 12시간 봉사활동에 30점 점수가 부여됐지만 올해부터는 4시간 10점, 8시간 20점, 12시간 30점, 16시간 4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올해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60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1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2개 기관 등 193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연수 강좌인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작년보다 1회 확대해 5회 실시된다. 강좌는 사찰중흥정책의 이해 및 지역사회 대중들과 소통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전과정'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분야로 6개 강좌가 개설됐다. 개설 강좌로는 '혜국 스님의 종경록' '월암 스님의 선문단련설' '지안 스님의 육조단경' '각목 스님의 초기불교 이해' '지안 스님의 유마경'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등이다.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현대

사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교양과정'과 전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법과정'은 각각 6개의 강좌가 마련됐다.

종단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순례연수도 강화됐다. 국내순례는 '경주 남산불적답사' 2회, '백제불교문화답사' 1회가 진행되며, 올해는 강원지역 적멸보궁을 순례하는 '4대 적멸보궁 순례'를 신설됐다.

해외순례는 '설정 스님과 함께하는 그리스·터키 명명기행' '월암 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정우 스님과 함께하는 동티베트 불교순례' '혜종 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지안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교육 연수'는 31개 기관에서 34개 과정을 시행하며 과정 수료 시 30점의 연수점수를 부여한다.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연수 교육을 처음 시행했던 2010년 1600명에 불과했던 참석 인원이 지난해 4700명으로 증가했다. 사실상 교육 대상 스님 대다수가 연수를 이수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행 6년 차를 맞는 불교와 사회 각 분야별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 깊이 연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법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클릭' 한번에 펼쳐지는 고려불화

스미소스니언博 유물 4만여 점 공개... 고려불화 3점

인터넷 클릭 한번에 미국 박물관이 소장한 불교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박물관 중 하나인 스미소스니언박물관은 1월 6일 아시아 유물 4만점을 온라인(www.asia.si.edu)에 무료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 유물 중에는 국내 10여 점 밖에 없는 고려불화 3점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재가 포함됐다. 스미소스니언박물관의 유물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타이파나가 상회에서 입수한 것이다.

그동안 수장고에만 있던 작품들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미국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화로 인한 것으로 미국 자연사 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2014년 5월 디지털화로 소장품 40여 만점을 무료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불화 등은 고화질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미국 스미소스니언 박물관이 인터넷에 공개한 고려불화 '아미타 팔상도'

미당 탄생 100년, 미발표작 전집으로

유작 200여 편 포함... 유품정리 책임자 윤재웅 교수 밝혀

초파일 주제 미발표 시 발견
올해 부처님오신날 공개 예정

올해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미당의 미발표작 등을 포함한 전집이 발간된다. 이에 미당 유품 정리 책임자인 윤재웅 동국대 교수(사진)를 1월 7일 동국도서관 미당문고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교수는 "미당은 살아 생전 950편의 시를 남겼고 미발표 시는 200여 편이 된다. 그동안 문예지에는 발표했지만 시집에는 실지 않았던 미수록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별해 5,6월 전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미당 시전집 5권을 비롯해 자서전 시문, 소설, 희곡 등 20여권이 전집으로 나올 예정이다. 전집 편찬위원으로는 윤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이남호 교수, 인하대 최현식 교수, 이경철 문학평론가, 전옥란 방송작가 등이 참여한다.

윤 교수는 "연초부터 중앙일보에 미당의 미발표 시 두 편 씩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미발표 시에는 사월 초파일유를 주제로 한 시도 있다. 이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미당은 근대 불교의 선지식 선택 박한영 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해 공부했으며, 이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해 20여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에 동국대는 동국



도서관 내에 미당문고를 만들어 그의 유품, 미발표 원고 등이 포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미당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미당문고에 고이 간직돼 있던 미당의 원고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미당의 유품정리 책임자이기도 한 윤재웅 교수는 서정주 문학 연구로 동국대 내에서 최초 박사학위를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미당은 1979년 퇴임했고 나는 동국대 81학번이니 어쩌면 만날 수 없었던 사이였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병환으로 휴직 한 까닭에 미당에게 소설강의와 시론 창작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미당을 스승으로 모시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던 윤 교수는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고 "미당의 유품정리"라는 직함을 얻게 된 것이다.

앞으로 미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당 시를 활용한 무용극과 판소리극 등 각종 공연 제작은 물론 서정주 문학의 발을 여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정혜숙 기자 bjwhs@hyunbul.com

"여러분 노력으로 유족·국민 응어리 풀려"

조계종, 세월호 수색
민간 잠수사 격려 자리 마련

아직도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세월호 참사. 세월호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며 지금도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간 잠수사들이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백성기 민간잠수사 총괄 감독, 박경렬 88민간잠수사 소장, 윤치관 보령호 바지 본부장, 이청관 잠수사안전지원단 부단장 등 민간잠수사와 봉사자 35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1월 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7개월간 어두운 바다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아직 아홉 분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8일 열린 민간 잠수사 격려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단추를 채워주고 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응어리가 해소됐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민간 잠수사들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들은 9명을 찾지 못한 미안함과 민간 잠수사에 대한 정부의 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월호 마지막 수색 작업까지 참여할 류

총렬 민간 잠수사는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주어 많은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9명을 끝내 찾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수색 당시 구조 상황에 대한 여러 유언비어들이 있었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명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는 "잠수사들이 부상과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치료 지원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됐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자승 스님은 "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잠수사들의 발언을 종단에서도 파악해 보겠다"면서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관계당국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은 건강을 기원하는 단추를 손수 채워주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조계종이 마련한 점심공양이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년 연수교육

'템플스테이 지도자 인력양성 과정' (초급과정)

【종단 연수교육 30점 인정】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포교인력 양성 중추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분회는 현대가 요구하는 포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창의적인 포교와 포교인력의 자리매김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하여 활력있는 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키우고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교육일정 : 2015년 2월 6일 ~ 8일 (음 12월 18일 ~ 20일) 3일간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봉사
- 대 상 :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으신 비구니 스님
법회를 좀 더 새롭게 하고자 원하시는 비구니 스님
- 참 가 비 : 5만원
- 접 수 : ☎ 02)3411-8103~4 / 손전화 010-8667-0427
- 신청마감 : 2015년 1월 31일
- 정 원 : 선착순 50명(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후 원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일자	시간	프로그램(1)	강사	비고	
1일	T/S 들 어 가 기	14:00 ~ 15:00	O T 및 입재식	스텝	· 삼귀의 / 반야심경 · 비구니회장스님의 환영사 ·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스님의 축사 · 일정안내, 봉사배정 · 사중서연
		15:00 ~ 16:30	T/S 모듈 -T/S현황과 전망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 템플스테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안다.
		16:30 ~ 18:00	저녁공양		
		18:00 ~ 19:30	T/S 공감 모듈 1 -템플스테이미래에 동행 연구	백거스님	· 템플스테이의 현시대에 맞는 방향개선
2일	T/S 알 아 가 기	19:30 ~ 21:30	T/S의사소통 모듈 1	진행자	· 첫 만남의 단계 공감 이해
		07:00 ~ 09:30	아침공양		
		09:30 ~ 11:00	T/S 공감 모듈 2-1:세월호(현안)	명법스님	· 외국인을 위한 T/S 안내의 중요성
		11:00 ~ 12:30	점심공양		
3일	T/S 나 아 가 기	12:30 ~ 14:00	T/S 문화 모듈 1 -사찰 문화에 이해	자현스님	· 사찰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실명의 기술을 익힌다.
		14:00 ~ 15:00	T/S 의사소통 모듈 2-1:세월호(현안)	정진숙	· 효과적 소통방법 연구
		15:00 ~ 16:30	T/S 문화 모듈 2 -초의 차 명상	지정스님	· 초의선사 차 문화에 대한 이해 · 정서안정을 위한 차 명상
		16:30 ~ 18:00	저녁공양		
3일	T/S 나 아 가 기	18:00 ~ 19:30	T/S 공감 모듈 3 -자율휴식형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 자율휴식형의 시간과 공간활용법에 대한 이해 ·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접목한 휴식형 연구
		19:30 ~ 21:30	T/S 공감 모듈 4 -템플스테이 응용 운영 프로그램	담소스님	· 단추를 응용한 테라피 · 사찰의 주요자원 활용법
		07:00 ~ 09:30	아침공양		
		09:30 ~ 11:00	T/S 문화 모듈 3 -관공(현안)으로의 템플스테이 운영과	김상태 박사	·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연구
3일	T/S 나 아 가 기	11:00 ~ 12:30	점심공양		
		12:30 ~ 14:00	T/S 사례연구	일감스님	· 사례연구에 도움과 조언
		14:00 ~ 14:30	회향식 및 소감문작성	진행자	· 회향식 및 소감문작성 · 충만한 마음을 안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